



12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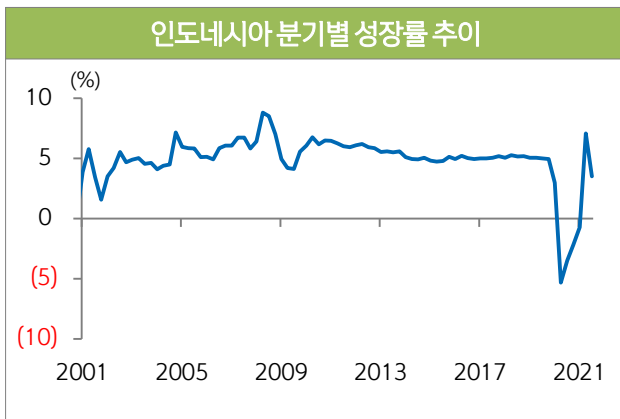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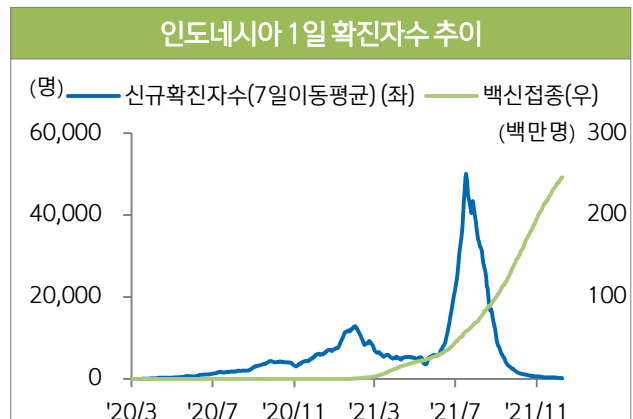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요약)

- 2021년 연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 회복이 지연되었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라마단-르바란 기간 이후 코로나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이어졌고, 이로 인해 2021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4% 수준에 미치지 못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준비하였던 코로나 극복 예산(PEN)의 집행도 경제 회복보다는 코로나19 확산 통제 활동에 집중되면서 민간 부문의 마중물이 되기 어려웠음. 9월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제조업PMI가 기준치인 50pt를 상회하고,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어 4분기부터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1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기대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에도 GDP대비 5%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2022년에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신흥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개선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글로벌 성장 어젠다인 탄소 중립 추진을 강조할 예정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원자재 채굴에서 차량/배터리 생산까지 전 부문에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투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음. 수출 원자재의 부가가치 상향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GDP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이전의 5%대 성장을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美 연준의 긴축 가속화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역대 최대 연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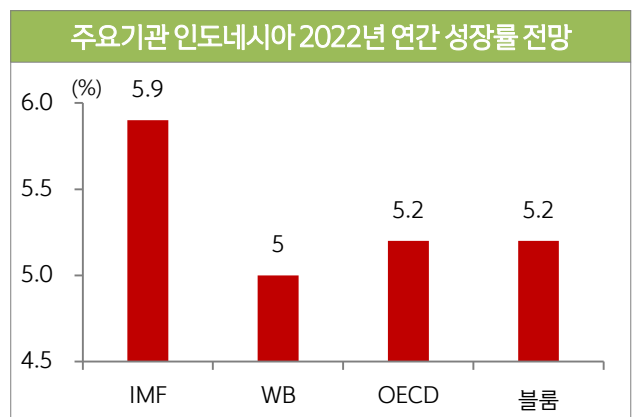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2022년 예산안

(단위: 조 루피아)	2021 예산	2022 예산
재정수입	1,744	1,841
재정지출	2,750	2,708
인프라지출	414	385
교육부문 지출	595	542
사회보장 지출	419	428
보건부문 지출	170	255
코로나 대응 및 국가회복 프로그램(PC-PEN)	744	321
재정적자	-1,006	-867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5.8%	-4.85%

자료: 언론 종합



자료: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2.10	12.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63.54	1,443.32	↑ 1.40	↑ 32.58	1,023.94 '21/01/28	1,500.81 '21/11/25
인니	자카르타종합	6,652.92	6,538.51	↑ 1.75	↑ 11.27	5,760.58 '21/05/19	6,723.39 '21/11/22
인도	SENSEX	58,786.67	57,696.46	↑ 1.89	↑ 23.11	45,553.96 '20/12/21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666.35	3,607.43	↑ 1.63	↑ 5.57	3,347.19 '20/12/11	3,715.37 '21/09/13
	심천종합	2,546.65	2,526.38	↑ 0.80	↑ 9.33	2,160.91 '21/03/09	2,546.65 '21/12/10
홍콩	H	8,578.33	8,455.45	↑ 1.45	↓ -20.12	8,274.77 '21/12/06	12,228.63 '21/02/17
	항셱	23,995.72	23,766.69	↑ 0.96	↓ -11.88	23,349.38 '21/12/06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10.23	2,968.33	↑ 1.41	↑ 4.76	2,733.68 '20/12/22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2.10	12.3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2	2.14	↓ -1.40	↓ -45.50	2.06 '21/09/15	2.65 '21/02/26
인도네시아	6.31	6.26	↑ 5.80	↑ 42.8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37	6.37	↓ 0.00	↑ 50.50	5.82 '21/01/05	6.39 '21/12/07
중국	2.88	2.90	↓ -2.70	↓ -27.00	2.82 '21/08/06	3.31 '20/12/11
한국	2.20	2.24	↓ -4.00	↑ 47.30	1.64 '20/12/23	2.56 '21/10/29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2.10	12.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24.00	22,792.00	↑ 1.02	↓ -0.32	22,645.00 '21/11/12	23,133.00 '20/12/24
달러-루피아 (IDR)	14,371.00	14,420.00	↓ -0.34	↑ 2.28	13,895.00 '21/01/04	14,615.00 '21/04/15
달러-루피 (INR)	75.78	75.17	↑ 0.81	↑ 3.71	72.33 '21/02/24	75.78 '21/12/10
달러-위안 (CNY)	6.37	6.38	↓ -0.10	↓ -2.41	6.34 '21/12/08	6.57 '21/03/30
달러-원 (KRW)	1,181.19	1,179.98	↑ 0.10	↑ 8.71	1,081.84 '21/01/04	1,198.85 '21/10/12

주요 뉴스





인도네시아, 기술기업 상장 유도 위해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의 대형 IPO를 통해 투자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는 대형 고성장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인도네시아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IPO)하는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술기업들 상장 시에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 Multiple voting)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상장을 하진 않았지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금융 당국에서는 승차공유 및 전자상거래 업체인 GoTo Group과 여행 기업 Traveloka와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상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감독청에서는 이번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자본 시장의 성공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창의 기업들에게 자금이 조달되는 통로를 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규정은 12월 1일부로 발효되며, 이번 규정을 통해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면서 3년간 최소 연 30% 성장률 기록하는 등의 기본 성장주 전제 조건을 충족하여야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음. 또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더라도 차등 의결권 구조는 10년간 운영되고, 주총 등을 통해서 의결 받을 경우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규정에서 정의하는 차등 의결권의 종류는 4가지 다양한 비율 제도를 정하고 있음.
- 올해 초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상장한 유니콘 기업인 PT Bukalapak은 투자자들의 열띤 참여속에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IPO인 15억 달러를 조달하였음. 인도네시아 최대 기술 기업 GoTo Group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식 IPO를 앞두고 시행한 지난달에 pre-IPO 형식으로 13억 달러의 투자를 확정지은 바 있음.
-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경제가 2025년까지 1,4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매년 연 20% 가까운 성장임.

(출처 : Reuters)



Pertamina,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정



❖ 요약 및 시사점

Pertamina의 자회사인 Pertamina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3가지 탄소중립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2060년 완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하에서는 2030년 탄소배출량 peak를 기록한 이후 2060년 까지 크게 줄인다는 계획을 반영함

-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석유-정유기업인 Pertamina의 자회사인 Pertamina 에너지 연구소에서 수행한 Pertamina 에너지 전망 자료를 통해 Pertamina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계적 이행 3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음.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기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 경과 및 추진 방향들을 검토하고 pertamina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을 담고 있음.
- 이번 보고서의 낮은 변화(Lower Transition)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에 탄소배출량이 최대가 되고, 석유 수요는 2047년에 최대가 되는 시나리오임. 시장 요구(market driven) 시나리오에서는 2045년에 탄소배출량 최대, 석유수요 2043년 최대이며,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탄소배출 최대, 2028년 석유 수요 최대라는 전망이 나왔음.
-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29%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녹색 전환 시나리오에 이러한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2030년 탄소배출량 최대 규모는 6.7억 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될 것이고 2060년에 이르러서는 2.7억 톤 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은 대부분 운송 및 전력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대가 운송 부문의 탄소중립에서 핵심적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플랜트의 확대가 전력 생산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방안이 됨.
-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리튬, 니켈 등 배터리용 자원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 국가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제련이 이뤄지고 있음. 이것이 점차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변화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제련 시장이 된다는 계획임.
- 녹색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의 중심이 전기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석유 및 석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가스가 2060년까지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써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화석 연료는 에너지 믹스의 18%를 차지하고, 나머지 82%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뒷면 계속)

- 인도네시아는 최근 2030년까지 40.6GW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낼 것이라고 에너지부를 통해 발표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는 2023년 이후 석탄 화력발전의 신규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를 은퇴시킬 계획임.
-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수림 및 토지 사용 부문에서의 탄소 포집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하며, 저탄소 발생 수소 생산 공정이나, 탄소 포집 저장(CCS),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와 같은 공정들을 추가로 의존해야 될 것임. 이러한 기술은 아직까지 실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탄소를 이러한 기술을 통해 줄여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산출이 필요함





코노코 필립스,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자산을 13.5억 달러에 매각



❖ 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수익성 및 추가 개발에 대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자산의 재편을 진행 중에 있음. 미국계 코노코 필립스는 동남아시아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호주 자산을 늘리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코노코 필립스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유 및 가스 자산을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인 Medco Energi Internasional에 13.5억 달러에 매각하였음. 이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이 점차 받을 빠고 있는 행보를 반영하고 있음.
- 양사는 지난 수요일(12/8) 발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남부 수마트라 지방 Corridor Block에 간접적으로 54%를 보유하고 있고,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운영기업인 Transasia Pipeline Company의 3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노코 필립스의 자회사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다고 발표하였음. Medco는 이와 별도로 이번 매각 관련된 내용이 주총 승인이 필요하며, 다른 관련된 당국의 승인도 아직 남아있다면 이러한 매입 절차를 내년 1분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소재 Corridor PSC社は 2개의 원유 유전과, 7개의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9월 사이에 日 5만 배럴 상당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음. 2020년의 추정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유전에서는 8500만 배럴 상당의 원유/가스 매장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대부분의 생산량은 가스이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구매자들과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음.
-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최근 몇년간 전세계에 걸친 그들의 화석 연료 관련 자산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관련 변화 압력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해왔음. 인도네시아 정부의 까다로운 태도 역시 석유 메이저들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고 관련 산업 분석가는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때때로 프로젝트에 대한 처리기간을 탐사에서부터가 아닌 최초 생산에서부터 20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음.
- 지난 8월에 미국계 쉘브론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석유 생산 블록인 Rokan으로부터 탈퇴하였음. 1971년부터 운영된 계약의 만료에 따른 조치임. 또한 쉘브론은 인도네시아 심해 개발(IDD) 프로젝트의 권리에 대해서도 매각을 결정하였음. 가스전을 탐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해 동안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 권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음.

(뒷면계속)

- ▶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Pertamina는 쉘브론으로부터 Rokan 광구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음. 그리고 쉘브론이 IDD에서 떠난 자리에는 이탈리아의 Eni가 후속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쉘브론의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지난 3월에 관련된 일이 만료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발표된 내용은 없었음.
- ▶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쉘이 올해 초에 필리핀의 Malampaya 프로젝트를 필리핀 국내 재벌 기업인 Udenna 그룹에 매각하였으며, 스페인의 렘솔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보유한 관련 자산은 말레이시아 Hibiscus Petroleum에 매각하였음.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는 6월에 동남아 지역에서 140억 달러 상당의 잠재적인 자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며, 대부분은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핵심 판매자로 나설 것이라고 하였음.
- ▶ Medco는 이렇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매도하는 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 중의 하나이며, 남중국해 근처에 있는 석유 가스 개발 사업인 남 나투나해 B블럭에 있는 코노코필립스 및 일본 인펙스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음. 또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Medco는 이번 Corridor 자산의 취득과 2.75억 달러 수준의 자본지출을 통해서 내년 Medco의 日 생산량은 15.5만 배럴 상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Medco Energi는 이러한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서도 기후변화 전략에 맞추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일 계획임.
- ▶ 한편 코노코 필립스는 이번 매각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동부 호주 지역에서 최대 천연가스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호주해 LNG프로젝트(APLNG)에 대한 지분을 기존 37.5%에서 47.5%로 확대하는데 사용할 계획임. 시드니에 근거를 두고 APLNG의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진 에너지로부터 10%의 추가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며 투자 비용은 1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해당 지분 매각 일은 2022년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APLNG사업은 日 11.5만 배럴 상당의 석유 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 총 생산수익은 7.5억 달러로 기대되고 있음. 여기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계약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동부의 석유, 가스전 최우선 탐사 검토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중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석유 및 가스전의 탐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동부 인도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작업을 지속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동부 인도네시아의 Buton, Warin, Timor, Seram, Aru 5개 지역에 대해서 석유 및 가스전에 대한 탐사에 주목하고 있음. 탐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 日 100마나 배럴 및 천연가스 日 120억 큐빅 피트를 생산하는 국가로 등극하기 위한 방안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추가 탐사에 대해 잠재력 있는 지역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숙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팀을 구성하여 진행을 하고 있음. 이들 5개 지역의 매장량은 약 98억 배럴 상당의 규모임
- 2021년 1월 19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확인된 매장량은 석유 24.4억 배럴과 천연가스 43.6조 큐빅 피트 규모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 가스 계약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부존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잠재력 있는 지역에서의 탐사를 독려했음. 20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96개 생산 지역 및 79개 탐사 지역으로 구성된 총 175개의 작업 구역을 관리중임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은 인도네시아 국내 석유 가스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임. 그러나, 규모를 바탕으로 봤을 때 산업용 원자재를 포함하여 석유 및 가스 원자재의 사용량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천연가스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에너지 전환 과정은 경쟁력, 비용, 가용량, 지속가능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 조코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그린 경제로 나가려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서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 2030년이면 빠르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들의 구매를 검토하는 등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중앙은행, 그린 경제가 인도네시아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피해규모가 커지고, 각국들이 탄소세, 국경세 등을 도입함에 따라 대응이 늦은 국가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도 녹색 금융에 대한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 글로벌 그린 금융으로의 흐름이 인도네시아 경제 부문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앙은행 부총재가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의 다양하고 필수적인 자원들에 기회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탄소 중립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 조코위 대통령이 앞서 인도네시아에는 지열, 바이오연료,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41.8만 MW규모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임.
-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경제 성장 및 외환 보유고 증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음.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GDP에 0.62%p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외환 보유고도 519억 달러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앙은행은 추산하였음.
- ▶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2050년까지 지속적인 위협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 다국적 전문가 서비스 기업인 Aon이 조사한 2020년 재해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향후 20년간 5.1조 달러에 달하는 기상 이변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국가 개발 계획 위원회의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매년 100조 루피아 상당의 금액을 자연 재해로 손실보고 있음. 기후 변화가 심각해질 수록 이러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 ▶ 글로벌 주요국들의 강한 그린 경제에 대한 수요로, 인도네시아는 너무 늦지 않게 관련한 변화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환경 오염 및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장벽이 더욱 강화되고 탄소 국경세 등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글로벌 금융 기관들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더욱 제한될 수 있게 됨.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그린 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정비하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출처 : Antara News)



중앙은행, G20 의제에 글로벌 및 국내 의제들의 균형을 맞출 필요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내년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기간 동안에 선진-개발도상국간 격차 회복,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과 통화정책 공조, CBDC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및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금융 부문 주제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음

- 2022년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으로서의 최우선 과제 리스트들에는 글로벌 이슈와 국내 의제를 조화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은행 총재는 말하였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함.
- 2022년 G20 의제 중 금융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경제의 단기 및 장기 회복에 있어서의 G20 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G20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는 통화 정책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 등 중앙은행 관련 과제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금융 부문 과제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지급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의 과제도 주요 이슈임.
- G20 의장국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을 통해 코로나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대응하는 과제를 검토해야 하며, 국제 자본 유출입, 데이터 격차, 금융 부문의 규제 개혁, 부채의 투명성과 관리와 같은 전통 금융 영역들의 문제도 다루게 될 것임.



재무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2022년까지 연장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검토하고 있음. 연간 3억 루피아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들의 경우 면제, 3억 루피아 초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50% 인하 등이 적용됨

-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제도들을 2022년에도 연장하는 것을 고려중임.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검토하여서 연장 기간 및 규모에 대해서 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중소기업 부문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재무부에서는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피해 회복의 성격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업 이익의 0.5% 수준의 법인소득세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정된 방향에 따르면 5억 루피아(35천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향임. 해당 법안에서는 5억 루피아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22%로 묶여있는 법인 소득 세금에 대한 할인을 50%로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이들 5억 루피아 이상의 이익을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11%수준으로 낮춰 적용되는 것임.
- 정부는 세금규제를 완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금 납부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음.